

이중섭의 재료와 기법

김주삼

삼성미술관 리움 보존연구실

Lee, Joong-Seop's Materials and Techniques

KIM Joo-S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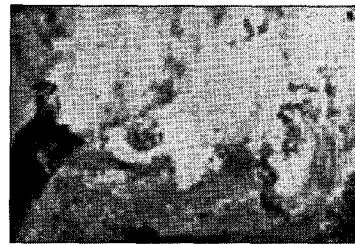
Leeum, Samsung Museum of Art

이중섭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은지화와 같은 독창적인 예술세계는 이미 우리에게 신화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내는 엽서와 자식에게 보내는 안타까운 안부 편지 그림에도 꼭 서명을 남기는 것을 보더라도 자신의 삶을 전부 예술로 승화하고자 했던 치열한 작가 정신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이와 같은 예술 정신과 특이한 소재 선택에 가려 간과되기 쉬운 것은 작품의 표현을 위해 그가 사용하였던 다양한 재료들과 여러 가지 기법들의 시도이다. 이중섭하면 떠오르는 은지화는 궁핍함 속에서 나온 우연의 산물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의 이러한 독창성은 작가가 평소 추구하였던 부단한 조형실험의 결과였다. 이중섭은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여러 종류의 지지체와 물감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한 많은 조형 실험을 했다.

삼성미술관 보존연구실에서는 그의 이러한 다양한 조형 실험을 유형별로 조사해 보았다. 그의 작품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편지화를 비롯한 많은 드로잉들은 습작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적외선이나 현미경조사를 통해 볼 때 미리 정확한 연필선으로 스케치가 되어 있는 등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완성도 높은 작품이었음을 알아 내었다. 은지화의 경우에는 기존의 자료와 생존하는 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제작과정을 재현하여 보았다. 특히 그간 지인들의 증언에 의해 전해지는 유화물감과 에나멜(산업용 페인트)의 혼용여부와 은지화를 칠한 물감의 성분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최초로 확인하였다.

유화와 에나멜 혼합에 대한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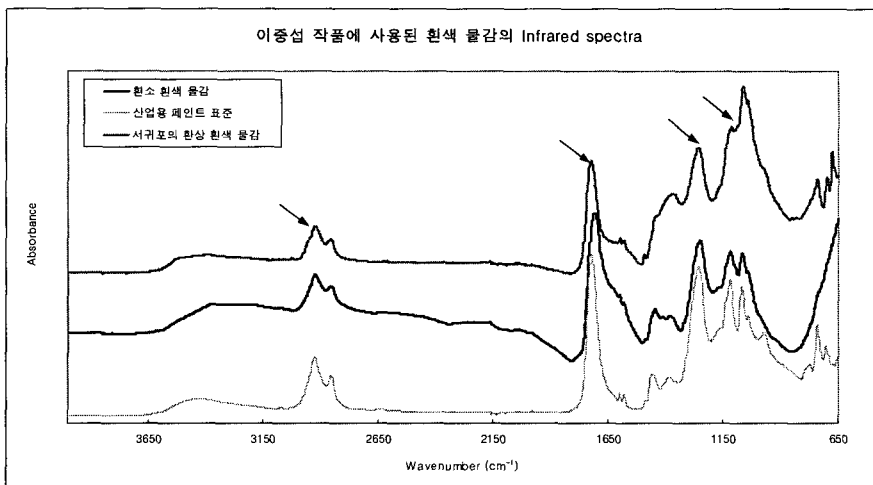
1. 현미경을 통한 관찰



육안으로 산업용 페인트에서 흔히 발견되는 주름과 드리핑 흔적을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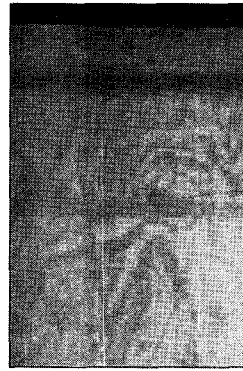
2. 분석기기를 이용한 자연과학적 조사

FT-IR 분석 결과에 의하면 '흰 소'와 '서귀포의 환상'의 흰색 불감이 당시 산업용 페인트의 주재료인 알키드(Alkyd polymer)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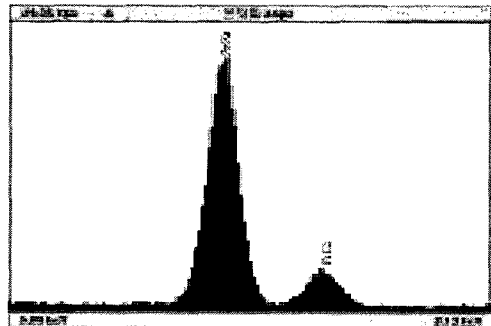
유화물감의 담채 기법 확인

일부 작품에서 유화 물감과 오일성분이 종이에 스며 들어 있는 것을 육안으로도 관찰할 수 있다. 작품의 뒷면에 자외선을 비추면 종이에 스며들어 간 유화의 기름성분이 노란색을 띄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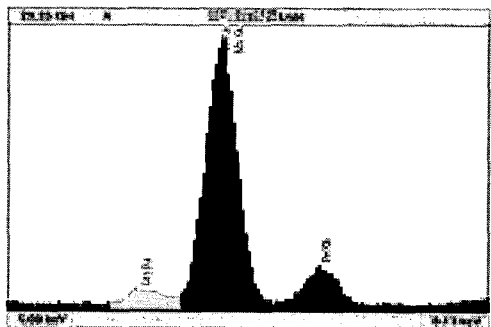


<애들과 물고기와 계>

은지화에 사용된 물감 성분의 분석



XRF 분석결과 철(Fe)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e_2O_3 의 철산화물계 안료인 ochre 또는 sienna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탄소계 검은색 안료도 혼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XRF 분석결과 철(Fe) 및 망간(Mn)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철산화물(Fe_2O_3) 및 망간산화물(MnO_2)이 포함된 안료인 umber계 안료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